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미현 협동사무처장 010-9068-5132)
자주통일평화연대 (담당: 황남순 정책홍보실장 010-9347-8103)

제 목 [보도자료]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10/19)

날 짜 2026. 10.19.(총 5 쪽)

보 도 자 료

[기자회견]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일시 장소 : 10. 19. (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까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 증가와 우리 선박 보호, 작전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쟁 상황에서의 파병은 아니다'라고 호르무즈 분쟁 연루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 명백한 어불성설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실제 외신보도나 국제해사국(IMB) 등의 기록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적활동이 늘고 있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속에 대체 항로로 떠오르고 있는 홍해로 가는 길목인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입니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으로 확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만 높일 것입니다. 해적 활동 증가를 핑계로, 정작 해적이 아닌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오만만으로 작전구역을 넓히려는 행태가 아닌지, 국민을 속이는 기만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꼼수 파병'이자 미국의 침략전쟁에 발을 들이는 '우회 파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해 온 상황에서, 실제 군사 충돌 지역인 오만만으로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정찰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명분 없는 작전구역 확대는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커녕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연장 동의안'이라는 편법으로 추진하려는 지금, 국회는 정부의 파병 연장안을 단호히 부결·거부해야 합니다.
- 이에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높은 청해부대 작전범위의 오만만 확대 및 해상초계기 파견 검토를 중단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 **일시·장소:** 2026년 10월 19일(월) 오후 2시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 **순서**

사회 : 최나리 참여연대 간사

발언1.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2.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

발언3.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 **퇴휴** 스님

플랫폼C **김지혜** 활동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최계연** 집행위원장

항의서한 전달

김재하 전국민중행동행동 공동대표,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서 [다운받기](#)

■첨부1_ 기자회견문

■첨부2_ 발언문

■첨부3_ 사진

■첨부1

[기자회견문]

청해부대 호르무즈 ‘변칙파병’ 시도 중단하라

최근 정부가 12월 말로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을 추진하면서, 그 작전 범위를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까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 증가와 우리 선박 보호, 작전 효율성을 명분으로 연장동의안 상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작전지역으로 거론된 오만만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해역이다.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활동이 증가하는데 왜 호르무즈 입구인 오만만까지 작전범위를 확장해야 하는가.

애초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해군기동부대151(CTF151)과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작전통제권이 사실상 미 중부사령부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으로 확대하고 정찰 전력까지 추가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사실상의 파병에 다름아니다.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로 국민의 눈을 속여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변칙적으로 파병하려는 기만적인 꼼수로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도 상충되는 조치이다.

더구나 지금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히기는 커녕, 기존 구역인 아덴만 인근에 청해부대를 계속 파견하는 것조차 문제인 상황이다. 청해부대 파병을 뒷받침할 유엔결의안 등

국제적 결의가 수년째 부재한 상황에서 청해부대가 속한 다국적연합해군의 현지임무에 대한 적절성이 이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군과 정부군,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군사충돌이 날로 격화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아덴만 일대의 군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언제 확전의 소용돌이가 덮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전장 속에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방치하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오만만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란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파병 목적과 작전범위, 규모, 대상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파병 연장 동의안으로 처리할 수 조차 없는 사안이다. 청해부대 활동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은 미국의 강력한 파병요구에 굴복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저버린 채 우리 장병들의 목숨과 교민의 안전, 주권과 평화를 패권전쟁의 제물로 헌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주권 국가로서 평화적 외교를 우선해야 할 정부가 강대국의 압력에 떠밀려 반헌법적 파병을 변칙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와 기간 연장 시도를 철회해야 함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청해부대 파병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 시민사회는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반헌법적 파병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주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불법적 침략전쟁 지원하는 반헌법적 파병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청해부대 호르무즈 ‘변칙파병’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청해부대 파병 중단하라!

국회는 알박한 속임수로 점철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동의안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2026년 10월 19일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첨부2. 발언문

1.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우회 파병의 패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반대의 여론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꿈수 표현을 씁니다. 오만만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꿈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덴만이나 오만만이나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다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단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 쪽에도 지금 전쟁 중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우회 파병을 고민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란과 적이 될 작정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안사르 알라 후티군하고도 적이 되어 전쟁을 하시렵니까? 국익에도 맞지 않고 실용도 아닙니다. 특히 청해 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회 동의안 제출할 걸로 예정이 되는데요. 그 동의안에 만약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나 작전 목적 등을 변경해서 올려서는 안 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라도 소말리아 해적에 대비한 청해부대의 작전 기간 연장은 우리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청해부대가 지금 이란을 적으로 삼고 후티군을 적으로 삼는 그 침략 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파병한다면 그 후과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파병 반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일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원래 전공이 북한 연구자거든요.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가장 최근에 북한은 대륙으로 나아가는 다리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10월 15일 날 중국과 그동안 개통을 하지 않았던 신의주 대교를 연결을 했고요. 그거보다 한 달 전에 9월 8일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러시아와도 다리를 연결을 했죠. 동해안 서해안을 다 관통하는 다리를 공교롭게도 최근에 다 연결을 했습니다. 아마 이걸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작업 혹은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기존에 있던 세계로 나아가던 다리를 지금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적대관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미 동맹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으나 중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중동으로 이미 열려 있었던 그 많은 다리들을 우리는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발목을 잡는 바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 연구자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정부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비 판은 하되 조롱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한마디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아마도 청해부대를 쓰든 혹은 군을 파견을 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중동에서 대한민국은 파병이 이루어지는 순간 진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정부는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같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8일부터 경실련 통일협회가 이순신 장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간사님 거기 갔다 오셨는데요. 혹시 지나시다가 보시면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의 해적 대응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된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해군, CTF-151 부대에 속해 있습니다. 즉 지휘권이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국방부 대변인은 '지시된 해역 밖으로 이동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또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구역 오만만으로의 확대는 기존 임무의 연장이 아닌 "미국-이란 전쟁 위험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이기에 비전투병 꿈수파병입니다.

또한 미국의 파병 요구에 부응하고 미국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명백한 전쟁행위입니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경제 이익 보호"와 "국민 보호"를 내세웠지만, 그 실제 효과와 의도에 대해서는
"우회 파병"이란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해상초계기를 추가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미군과 공유할 경우, 실질적으로 미군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 "불개입" 원칙은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하고 오히려 타격대상이 됩니다.

국회 동의적인 측면에서도 정부는 기존 파병 연장안의 "유사시 국민 보호" 조항을 활용해 별도의 비준
없이 구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이미 논란이 되었고, 국회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도 돌아봐야 합니다.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의료나 공병, 재건과 수송, 평화를 내세웠습니다. 언제나
비전투였지만 미국이 벌인 전쟁에 한국군이 따라 들어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입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상대방이란 것입니다. 이란은 '한국의
어떤 형태의 군사적 관여도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입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상대가 "간접 개입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우리 장병과 상선, 교민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파병은 국민을 조준점으로 하는 새로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강대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략질과 착취와 수탈과 전쟁을 벌이는, 그야말로
해적질의 끝판왕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어하고 휴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남의 전쟁에 우리의 피를 흘린 역사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이익과 헌법,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퇴로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사진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통일위원장)



회견문 낭독